

# 사설

## 불교TV 살릴 사람 없나

불교텔레비전이 최악의 위기상황에 처해있다. 그리고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위태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못하느냐의 근본적인 문제에 당면해 있는 것이다.

천만 불자들이, 불교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불교텔레비전의 이런 위기상황에 애를 태우고 있으며, 또 뜻있는 많은 분들은 직접 이 위기를 해소하는데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려 발벗고 나서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심이 되어야 할 조계종을 비롯한 교계의 종단들과, 관계 인사들은 손을 놓고 있는 듯하다는 것이 더욱 더 이 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불교 텔레비전이 없어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책임 회피를 위한 명분을 쌓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위기를 좀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간 다음, 극적으로 자신의 힘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위기를 해소하여 불교텔레비전의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천만 불자들이 있는데 누구라도 나서지 않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나아가, 만에 하나라도 불교텔레비전이 없어져 버린다면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다. 현대 사회는 철저한 영상매체의 시대이고 텔레비전은 바로 그 상징이다. 그토록 어렵게 마련한 영상포교의 교두보인 불교텔레비전을 여기서 포기한다면 불교 중흥, 불교 현대화의 과정은 완전히 뒷걸음질 치게 되고 마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힘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대중매체는 그만큼 오랜 세월의 노력과 투자 없이는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급의 기술을 축적하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기에 대중구

제를 위한 천만 불자들의 염원으로 이루어진 불교텔레비전이 그동안 어려움을 겪어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교계 당사자들의 성급하고도 과행적인 운영이 오히려 이 어려움을 증폭시켰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동안 쌓아온 것마저 한꺼번에 날려 버리게 된 상황을 맞이하고서도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불교텔레비전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초한다면 천만의 신도를 지녔다는 불교의 위상은 어찌되는가? 현대 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는 종교라고 나설 수 없는 3류의 종교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또한 불교 현대화와 대중구제의 합한 발걸음에 성원을 보내던 뜻있는 불자들의 열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등을 돌리게 될 것이며, 다시 불교텔레비전이 서는 것은 까마득한 뒷날이 될 것이다.

이 땅의 많은 불자들이 아직 대중매체를 통한 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불교텔레비전이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은 근본적으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자들의 인식을 끌어올리고 힘을 모아야 할 구심점이 있어야 한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불교텔레비전이 존재의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는, 그 해결의 역할을 맡은 관계자들이 불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해결의 구심점으로 바로 서는 것이 우선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그 구심점을 중심으로 모든 교계의 지도자들이 불교텔레비전을 바로 세우는데 발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 조계종 청사재원 '어디서' 공사중 이주대책 '어디로'

## 청사건립위 7일 발족 계획발표

조계종 총무원청사 신축 사업과 관련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종도들의 의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또 1백80억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 및 공사기간 중 이주 대책을 제시해 종도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청사 신축에 80억원이 필요하나 적립된 청사신축 특별회계는 35억원에 불과하다. 또 중앙승가대 김포학사 공사비로 1백76억원(시공사인 총합은 350억원)이 남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회계 이외의 청사 신축비용의 조달 방법은

밝혀진 것이 없다.

현 청사 철거 후 총무원을 조계사 제2대종교박물관으로 이주키로 한 데 따라 지난 해 조계종사태 후 열린강연회, 각종 교리·문화 강좌 등을 개설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조계사의 계획도 강일실 부족으로 크게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무원과 교육원 중화관 공사기간 동안 조계사 인근으로 이전하거나, 중앙승가대 김포학사로 이전하면 안양동 학사를 임시총무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 의제시행령-승가대학령 '통과'

### 조계종, 의제 불시행자 징계방안 확정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은 8월 24일 총무원회의를 열고 '사미·사미니의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과 '승가대학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미·사미니의제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98년 2월28일 제정)은 '식차마나니 의제는 사미·사미니의제를 준용한다'는 조항과, '사미·사미니식차마나니가 본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의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중벌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승가대학령 개정안'(96년 7

월2일 제정)은 제5조 1항 승가대학 지정요건을 기존의 '학년 정원 7인 이상, 총학인 정원 30인 이상 80인 이하'에서 '총학인 정원 10인 이상 80인 이하'로 개정했다. 또 제39조 1항 학인의 전학 요건을 기존의 '소속된 승가대학 교장의 추천과 당해 승가대학 교무회의의 의결을 통한 경우'로 전할 수 있다'에 '교육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전할 수 있다'는 사항을 추가했다.

김재경 기자 (jkim@buddhapia.com)

쌍계사 주지후보에 통광스님 선출



조계종 제13교구 쌍계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법광)는 26일 산중총회를 열어 단독인 후보인 통광스님(쌍계사 승가대학 강주)을 쌍계사 주지후보로 만장일치로 선출하고 총무원에 주지임을 표명키로 했다. 통광스님은 여환스님을 은사로 쌍계사에서 출가, 59년 명허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63년 통산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 10하안거를 성만했다. 칠발사 주지를 역임하며 복원불사를 이뤘다. 정성운 기자

통도사 주지직대에 현문스님 임명



조계종총무원장 고산스님은 8월 27일 통도사 주지직무대리에 현문스님을 임명했다. 임명장을 받은 후 현문스님은 기자들과 만나 "대중공의를 받들어 통도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문스님은 월하스님을 은사로 통도사에서 출가해 70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과 졸업 후 통도사 총무국장, 표충사 주지, 조계종 중앙선관위원을 역임했다. 정성운 기자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4천3백평 규모의 총무원청사 조감도. 한 총회의원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수렴의 결여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종도들의 참여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장은 7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원택 총무부장) 출범식을 갖고, 이때 재원 마련 방안 및 이전 박물관 입주에 대해 업무공간과 문화공간이 혼합되는 부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 총회의원은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나타난 여론수렴의 결여도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제부터라도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 종도들의 참여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장은 7일 청사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원택 총무부장) 출범식을 갖고, 이때 재원 마련 방안 및 이전 박물관 입주에 대해 업무공간과 문화공간이 혼합되는 부조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신도화합통해 운영정상화 최선"

### 조계종 중앙신도회 백창기 새회장

"우선 신도회의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들의 고안을 기꺼이 받아들여 신도회 운영에 충실해 반영하겠다."

8월20일 조계사에서 열린 조계종 중앙신도회 대의원총회에서 제2대 회장에 선출된 백창기(67·광주전남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씨는 "거듭된 신도회의 파행을 마무리 짓고 조직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재정지립의 기초를 다져 중단 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무원과는 긴밀히 협조관계를 유지해 불교 의호세력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백 회장은 "그러나 옳고 그른 일은 분명히 하고 할 말은 하는 신도회를 만들어 스스로 자율성을 키워가는 신도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한 신도단체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재정지립 기반의 제도적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내부 조직정비를 마친 후 전국신도회와의 통합도 모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거 양보하고 화합한다면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백 회장은 △교구별 지역별



김재경 기자

## "새회장에 힘 모아주자" 여론

### 중앙신도회의 앞날

백창기 중앙신도회 회장은 일부 대의원들이 제기한 불공정 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특유의 운운함과 포용력을 겸비한 성품으로 대의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다. 대의원총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80명(투표자 170명 중)의 대의원들도 이미 상당수 백 회장에 힘을 모아주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일부 대의원들이 당

정도로 중앙신도회의 정상화에 강한 의욕을 갖고 있다. 총무원으로부터의 자율성 확보를 주장하며 반대입장에 있던 대의원들을 대거 부회장단(50명 내외)으로 영입하는 등 화합과 단결에도 고심하고 있다.

이미 사무처장에 최연(前 대불련총동원회 사무총장), 교화부장에 공인창(유임), 기획실장 겸 총무부장에 임동현(前 조계종포교사단 국장) 등 실무진을 내정하는 등 사무처 강화에도 의욕을 쏟고 있어 모처럼 중앙신도회에 활기가 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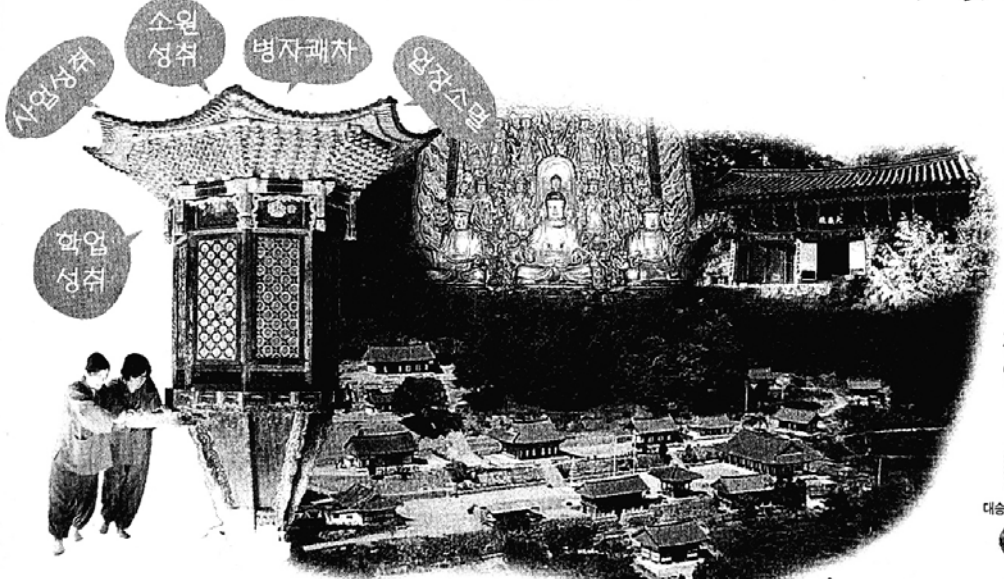
현대만평

현대만평



메아리

# 윤장대(보물 제684호)에 願(원)을 실어 돌려라 ~ 이루어지리라



예천군 운문면 소백산에 신라시대 이후 부처님 가르침을 지켜온 범보대찰 운문사가 있습니다. 1,200년동안 경전을 수호하고 널리 알려진 화엄도량 운문사의 사적은 한국불교의 역사와 정신을 대표하는 근본도량으로서 이천만불자의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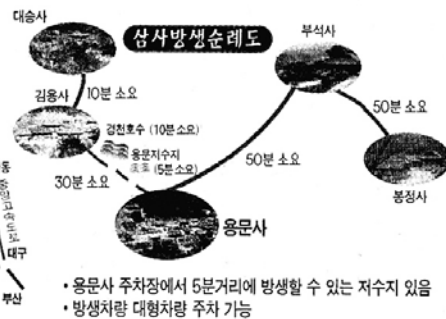
운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가 보존되어 있고, 대장전, 목불좌상, 목각탱화 등 많은 국보급 보물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구산선문의 5백명 스님들이 모여 담선회를 열어 한국불교의 정통선맥을 잇고, 고려 명종 때에는 3만명의 스님들이 위기에 빠진 조국을 구하고서 3만승대 대법회를 여는 동안 이러한 보물들은 함께 호국과 한국불교 중흥에 앞장서온 불교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주어지지 못했던 이 땅의 대다수 중생들에게 대장전의 윤장대는 부처님을 대신하여 자상하고 자비로운 가르침을 일천년동안이나 전해 왔습니다. 모든 정성을 모아 기도하며 윤장대를 돌리는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운문사에서는 근대 이래 최초로 윤장대를 공개하여 윤장대 운전 대장경 불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윤장대를 돌리면서 업장이 소멸되고 각자 구하고 원(願)하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며, 남북통일과 IMF 국난극복이 원만히 성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특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전을 읽는 공덕을 지어 업장을 소멸하고 학업이 성취하며 사업이 번창하도록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주지 청 안 합 장

일 재 : 1999(불기2543)년 10월 17일(음 9월 9일)토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1999(불기2543)년 10월 26일(음 9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



- 등(1인당) 10,000원 · 영가 위패(1위당) 10,000원
- 동참 온라인 구좌 농 협 : 747028-51-009313 예금주: 운문사 우체국: 702191-0016235
- 대장경을 이고 법성도를 돌면서 윤장대를 운전하실 분만 동참금 1만원을 준비하십시오.
- 당일엔 혼잡하오니 미리 전화로 접수하여 주십시오.

### 대한불교 조계종 소백산 운문사

문의 : (0584)655-8695(중무소), 655-1010, 8405

운문사는 움직이는 팔만대장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9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국내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윤장대(보물 684호)

**운문사 가는길**  
버스 : 동서울터미널 출발(06:10~6:30, 40분간격) 3시간 10분 소요 → 예천에서 하차 → 택시(운문사) 20분  
비행기 (서울 → 예천) 대한항공 오전 8시 45분 오후 5시  
아시아나  
(예천 → 서울) 대한항공 오전 10시 10분 오후 6시 30분  
아시아나 오후 5시 20분